

양계인의 敵 뉴캐슬을 예방하자

서 영 철

<대한신약 영업부>

요즘을 전국적으로 특히 경인지역에 뉴캐슬이 만연하고 있다.

이처럼 해마다 뉴캐슬이 번지는 원인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원천적으로 발병책임은 우리 양계가에게 있으며 그 피해도 양계가만이 입는다는 문제가 있다. 여기 뉴캐슬발병원인과 예방접종에 관한 원고를 게재하니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피해가 확대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편집자 주>

뉴캐슬이 가장 무서운 질병이라는 것은 이제 양계인들 중 모르는 이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질병은 달갑지 않게도 매년 찾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매년 찾아오는 불청객—뉴캐슬병은 한번 발생하면 치료할 수 있는 길은 없다. 그것도 몇마리, 몇십마리가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 계군이 급속한 속도로 폐사하게 된다. 이러한 뉴캐슬은 전파속도가 빨라 급격히 그 지역의 양계단지애 피해를 주게 된다. 1일생활권이 된 요즈음은 전국이 뉴캐슬 발생 가능 지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불청객

뉴캐슬이 양계인에게 가장 피해를 안겨주는 법정전염병이란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며 또한 이러한 질병이 연례행사처럼 매년 찾아오는 것이다. 올해도 벌써 경상도, 전라도 지방에서 뉴캐슬의 발병소식이 들려오더니 요즈음은 서울근교에서 뉴캐슬이 발병하고 있다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물론 양계단지인 서울근교와 경기도 지방에서의 뉴캐슬 발생소식이 올해만이 아니기 때문에 새삼스런 이야기는 아니라 하겠지만, 왜 매년

찾아오는 이러한 질병을 예방하지 못하는 것인가?

전국이 뉴캐슬 발생가능지

앞서도 말했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이 뉴캐슬의 발생 가능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국이 1일 생활권화했기 때문이다.

얼마전 제주도에서 채란계 3,000수를 경영하는 양계인으로부터 꽤나 짹짹하게 양계업을 경영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다야는 바이지만 제주도는 육지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질병발생이 적다는 것이다. 또 제주도의 난가(卵價)는 제주지역의 양계수수가 적고, 도내의 양계인이 잘 단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도 난가가 보통 개당 5원은 훗가하여 양계인이 현재와 같이 단합된 상태에서라면 생활안정은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가 만난 어느 양계인은 제주도 육지와 동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경영하는 양계장은 인가와 아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닭이 질병에 걸릴 염려가 없다고 장담했다. 이 양계인은 이러한 깨끗하고 질병의 전파 염려가 없는 지역에서 최근 몇년간 양계를 경영하여 매년 산란율 78% 이상을 올렸다고 자랑했다. 실제 양계업으로 이익을 본 관계로, 계사의 신축 등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들었다. 또한 그때 필자가 이양계인으로 부터 가장 염려스럽게 들은 점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사육하기 때문에 뉴캐슬백신, 마렙백신 등은 물론 항생제나 영양제를 따로 투여하지 않아도 좋은 산란율을 올리고 있다고 자랑을 아끼지 않았다. 백신주사를 하

지 않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말해 주었지만 그 양계인은 이제까지의 경험으로 보아 귀담아 들을리 만무였다. 하기가 악풍의 비호를 절약하고 좋은 산란율을 올려 수익을 높일 수 있다면야 그것보다 바람직한 일이 없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조언은 이 양계인에 의해 묵살되었지만, 그후 1년후인 지난 3월경 이 양계인의 양계장에 뉴캐슬이 발병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몇년동안의 이익을 송두리채 날려버린 것이다.

가장 중요한 공동방역체제

제주도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객의 출입이 잦아 아무리 육지와 동떨어 졌다고는 하나 질병발생의 위험은 다른 곳이나 마찬가지로 때문이다. 뉴캐슬은 연중 발생되며 그 피해가 크기 때문에 양계인이 뉴캐슬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것은 치료법이 없고 거의 모든 닭이 빠른 시간 안에 폐사하므로 양계장의 소득과 뉴캐슬프로그램에 따른 집중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정상적인 백신이라도 뉴캐슬발생의 여지는 많은 것이다. 예방접종이 잘못되었거나 예방접종을 제대로 실시했다해도 뉴캐슬이 발생했던 지역은 뉴캐슬 바이러스가 상주하고 있어 백신접종의 효과가 없어지게 된다. 물론 백신접종은 필수불가결한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지역별로 공동방역체제를 취하는 길 뿐이라고 생각된다. 양계인은 각 지역별로 집단 소득을 하고 소득을 완전히 실시한 다음 계사를 2주간 비워 놔다가 40~50일령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닭을 길러보아 뉴캐슬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양계를 계속하는 것이 안전하나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또한 뉴캐슬발생지역에서는 공동육추를 하여 백신을 접종하고 역가가 인정된 것만을 키우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들이 대단히 실행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최소한 양계인의 공동방역에 대한 협조아래 공동으로 소득 및 백신접종 등을 실시함으로써 예방에 힘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서로의 정보교환으로 협조체제이속

우리나라도 양계협회가 있고 또 각 지역마다 양계인의 단체인 계우회 등이 결성되어 양계인들이 공동구입, 공동출하 친목 등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 단체들은 그동안 양계인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많은 일을 해왔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질병문제만은 아주 소극적이다. 우리나라의 양계산업이 이웃 일본이나 서구의 기술수준에 조금도 뒤지지 않았으나 질병문제만은 다른 국가에 뒤지고 있는 모양이다. 특히 뉴캐슬과 같은 전염병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할 것 같다. 우리 양계인들은 자기집에 뉴캐슬이 발생한 사실을 숨기고 있는 것이다. 일반 새일즈맨이나 다른 지역의 양계인이 질병이 발생한 상황을 물음 라치면 무슨 소리냐고 펄쩍 뛰면서 질병발생을 갖은 방법으로 은폐하려고 애쓰고 있다. 이러한 질병발생으로 자기의 양계장이나 종계장이 신용이 타락될까 염려해서이다.

가족위생연구소등에 알려 빨리 대책수립

이러한 은폐작전은 물론 자기자신의 양계장의 신용타락을 위해 일시적인 방편이 될지도 모르지만 질병을 더욱 전파하는 계기가 되어 남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일이 될 뿐 아니라 질병방역 체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양계인들은 매년 뉴캐슬로 인한 쓰라린 경험을 체험하면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양계가는 질병의 증상이 보일 때는 즉시 가족위생연구소나 가족보건소 등에 병상감정을 의뢰하여 자기자신의 방역체제에 만전을 기할 뿐 아니라 지역양계장에 더욱 질병이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야만 다음의 질병발생을 예방할 수 있으며 질병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을 수 있게 되리라 믿는다. 모든 대책을 사전에 강구해야 하듯이 질병증상이 보일 때 과감히 도태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되겠다. 원칙적으로 질병이 발생했을 때에

는 가축방역반이 현지에 파견되어 병에 걸린 닭이나 질병이 만연된 지역의 닭을 매몰 도태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 실정에서 볼 때 너무 가혹한 처사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양계업도 이제 선진국 사양기술 면에 조금도 뒤지지 않는다고 들었다. 산란능력 및 산육능력을 높이기 위해 많은 외국종계가 도입되었고 국산계 또한 외국계에 못지않은 능력을 보유할만큼 육종개발되었다. 울타어 순제까지 수입되어 우리나라 양계발전사의 새로운 계기를 다시 마련하게까지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이 좋은 외국계의 수입으로 고도의 능력을 보유한 개량계를 육성, 단백질자원의 원활한 공급은 물론 양계가의 수익증대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되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 또한 없지 않다. 이중 가장 중요한 부작용이 질병이 만연하게 되고, 새로운 질병이 생겨 양계가가 고심하게 되었다. 과거 재래종은 생산 능력면에서 아주 보잘것 없는 것이었지만 항병력에는 아주 강해 질병에 대한 위험은 거의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개량계는 질병에 대한 항병력이 약해 자칫 사양관리에 부주의 하면 질병에 걸릴 염려가 많게 된 것이다. 세계가 좁아진데다 외국계의 도입으로 이제까지 양계가가 당해보지 않은 질병들이 많이 발생했고 또 이러한 질병들이 복합적으로 발생되어 방역 당국을 더욱 당혹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뉴캐슬은 그 만연속도가 빠르고 그 피해가 크기 때문에 양계가는 사전에 그 예방대책을 철저히 해야겠다.

소독의 철저는 질병예방의 기본

사람에 있어서도 건강하게 되면 질병에 걸릴 염려가 없다. 우선 건강하기 위해 적절한 영양을 섭취하고 또 좋은 환경을 만들어 질병의 발생을 억제하려 노력하고 있다. 가축사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좋은 환경관리, 사양관리는 반드시 그에 대한 상응한 보답을 하게 된다. 요즘은 소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점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소독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도 일부 양축가가

소독을 등한시 하는이가 있는데 이는 매우 그릇된 생각이다. 소독을 수시로 함으로서 각종 질병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요즘은 소독약의 수요는 매년 증대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는 질병예방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

뉴캐슬 백신접종 프로그램의 철저이행

이제까지 소독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뉴캐슬 백신접종프로그램에 의한 철저한 접종만이 뉴캐슬을 예방하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임을 말할 필요도 없다. 백신접종을 할때에 철저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관리기사의 입회아래 실시해야 한다. 백신의 역가문제도 논의될 수 있으나 대개 농장의 관리원들에게 백신접종을 맡기게 되면 철저히 하지 않을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일이 접종하는 것이 번거로워 백신을 농장의 근처에 파묻어 버리는 일까지 있어 반드시 관리기사의 입회하에 백신을 접종해야 할 것이다. 백신의 역가문제를 제약회사에 항의하기에 앞서 프로그램에 의해 정확히 백신접종을 했는지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질병이 발생한 다음 그 원인을 규명하면 백신접종에 허점이 있음을 흔히 발견하지만, 때는 이미 늦어지게 된다. 백신접종의 철저한 이행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백신접종 프로그램

마지막으로 안양가축위생연구소가 장려하는 뉴캐슬예방 접종법을 소개하여 양계가에 참고 하였으면 한다. 모든 질병에 대한 대책은 예방이지 치료는 아니라는 점을 재삼 강조하며 양계가는 양계인의 적(敵)인 질병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하리라 믿는다.

1. 백신접종 응용 프로그램(ND 常在地 및 流行地와 그들과의 接近地 및 交流가 많은 地域)

이 프로그램의 번역목표는 강력한 면역을 부여해서 野外침입시 피해를 최대한으로 감소 하는데 있음.

生毒+不活化백신(死毒백신)

〈基礎접종〉			〈補強접종〉		
↓ 1 차	↓ 2 차	↓ 3 차	↓ 4 차	↓ 5 차	
1~4日齡 生 1首分	2週齡 生 1首分	4週齡※ 生 1首分	2個月齡 不 1.0ml	4個月齡 不 1.0ml	每3個月齡 不 1.0ml
↓	↓	↓	↓	↓	↓

※ 일반적으로 양계장에 권하고 싶은 방법.

不活化백신의 補強接種은 2個月부터 시작하는 것이 理想的이며 4週分の 生毒백신 1首分 대신 不活化백신 1.0ml를 접종해도 그와 동등한 효과가 있다.

2. 주의사항

(가) 生毒(B₁)백신

음수용백신의 경우는 접종면에서 省力的인 면역부여 바이러스양이 많이 필요하고 투여조건에 따라 면역율의 차이가 심하다. 특히 어린닭의 경우 음수량이 적어 개체차가 심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따라서 생독백신은 비강접종이 적합하며, 또한 확실한 면역을 가능한 한 고루할 수 있다. 단, 대단위 양계에 있어서 접종을 省力的으로 실시할 경우는 접종후 면역의 성립여부를 실험실에서 확인하도록 한다.

(나) B₁ 음수투여시의 주의

① 음수기구의 청소, 소독약의 잔존은 금물이 되어 있으며, 투여전에 斷水하고 음수량이

균형있게 급여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② 희석한 물은 산성이나 알칼리성의 물을 피하고, 水道水 또는 鹽素水의 사용도 금지되며 중성의 우물물이 적합하다.

(다) B₁의 정비: 정확한 접종.

(라) 백신접종 효과 획득전, 즉 보강접종에 의한, 획득기간 중 위생관리를 엄중히 하며, ND바이러스의 침입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마) 백신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또 그 보관상태를 점검한다. 즉 백신을 어둡고 찬곳에(냉장고) 보관된 것인지 등을 확인 사용한 백신의 제조회사명 및 롯트 번호 등도 관리일지에 기록하는 습관을 기른다.



三正農苑 (70일雛)

淸淨環境에서 完璧하게 飼養管理된 有名品種을 宅의 양계장까지 안전하게 輸送.

有名品種—하이섹스, 바브콕, 세이바
 育成方法—初生雛時 삿갓평사 中雛時 케이지 사육
 防疫計劃—계절적인 표준접종계획준수
 發育度—品種別표준체중보증
 輸送—도착책임.

계약사육접수중 (70일추)

三正農苑

代表 李 晤 炯

연락처: 양지가축약국 56-1938

130-22 京畿道廣州郡五浦面陽筏1里261성 약 원 55-3177